



2013. 5. 14(화)
(농수산경제위원회)

2013년 농수산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 국 가 :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 기 간 : 2013. 3. 18 ~ 3. 27 (8박 10일)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목 차

1. 총 평

1

2. 출장개요

2

3. 출장배경

2

4. 나라별 주요출장내용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3

5. 정책제안

21

6. 국외출장을 다녀와서

32

- 2013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 의원 공무국의 출장 결과보고 (요약)

□ 출장 개요

- 기 간 : '13. 3. 18 ~ 3. 27 (8박 10일)
- 장 소 : 서유럽 4개국(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 인 원 : 14명 (의원8, 의회사무처3, 집행부3)
- ※ 소요 경비 : 1인당 4,700천원 (자부담 1,100천원 포함)

□ 출장 목적

- 3농혁신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체계와 FTA체결 정부 대응책
-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제품 판로 개척에 대한 선진사례
-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과 시설재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운영 사례

□ 중점연수내용 (정책제안)

경제분야	<p>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마을기업 육성 융·복합 지원</p> <p>→ 축산 부산물을 이용 발전소 설치 등으로 전기, 온수, 가스등 생산</p> <p>▶ 천안, 홍성, 예산, 당진 등 지역 축산마을에 발전소 설치 운영필요</p> <p>→ 지역 특성의 자원(온천지역)을 활용한 지역난방 공급</p> <p>→ 기타 시설하우스 단지 열병합 발전기 설치 중앙난방 공급 운영</p>
농업분야	<p>② 화력발전소와 연계한 시설하우스 난방 해결</p> <p>→ 도내소재 화력발전 폐열온수 이용한 시설하우스 난방 활용</p>
	<p>③ 친환경농업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문과정 운영</p> <p>→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유기농 친환경 재배기술 교육 전문농업인 배양</p>
	<p>④ 농어촌 마을단위사업 선정 기준 제도 개선</p> <p>→ 단순사업 입지조건 보다는 주민참여, 강한 공동체 의식 중요성 강조</p>

□ 향후 조치계획

- 충청남도 의회 홈페이지 게재
- 의회 의장 ⇒ 도지사에게 정책제안

농수산경제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

I 총 평

- ◆ 2013. 3. 18 ~ 27까지 10일간 충청남도의회 연수 계획에 의거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의 사회적기업 분야와 친환경 농업 재배 분야에 중점을 두고 관련기관 방문을 통하여 연수 실시
 - 프랑스의 농업지방청과 농업회의소를 방문하여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농 바이오 농산물 우선정책 시행과 농업에 필요한 물관리 정책을 강화하여 농업용수의 철저한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진 농업을 볼 수 있었으며,
 - 독일의 사회적기업과 윈데스하임의 와이너리 농장, 신재생에너지 마을, 등을 방문하여 친환경 농산물 재배현장과 가축분뇨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경제적인 효과, 난방 연료 절감 등 소득창출을 위한 선진 사례 등을 볼 수 있었으며,
 - 벨기에, 네덜란드의 아그리포트 파프리카 농장, 유기농업센터인 농업대학 등을 방문하여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재배 현장과 유기농 농업 재배를 위한 농업대학의 전문 리더육성 등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사례 등을 볼 수 있었음.

- ⇒ 금번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소요경비 중 개인별 110만원 자기부담을 마다하지 않고 선진국의 제도를 체험하고 배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열의가 타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 ⇒ 또한, 도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과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양한 정책사례와 효율적인 정책 대안 제시 마련

II

출장개요

- 기 간 : 2013. 3. 18 ~ 3. 27(8박 10일)
- 대상지역 : 4개국(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 참여인원 : 14명(의원 8, 의회사무처 3, 집행부 3)
 - 의 원(8) : 이준우의장, 이종현위원장, 김홍열부위원장, 고남중, 김득응, 이종화, 조길행, 조이환 의원
 - 의회사무처(3) : 농경위 전문위원실 2, 총무담당관실 1
 - 집 행 부(3) : 경제통상실 1, 농수산국 1, 농업기술원 1
- 소요경비 : 65,800천원 (1인당 4,700천원/자부담 1,100천원 포함)
- 방 법 : 전문여행사 대행

III

출장배경

경제 분야

-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과 보조금 지원 관련 사례
-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제품 판로 개척에 대한 선진사례 등

농업 분야

- 3농혁신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체계와 FTA체결 정부 대응책
-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과 시설재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운영 사례 등

IV

나라별 주요 출장내용

1 출장세부일정

일 자	장 소	교통편	연 수 일 정	비고
제1일차 (3. 18, 월)	도의회 인 천 파 리	전용차량 국제항공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의회 출발(08:30) → 인천공항(11:00) 인천공항 출발(14:00)/KE901 파리 도착 (12시간 10분소요) 	
제2일차 (3. 19, 화)	파 리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리 농업지방청 방문 -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의견 교환 	
제3일차 (3. 20, 수)	파 리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리 농업회의소 방문 - 지역 마을기업 형태의 협회 프랑크푸르트 이동 	
제4일차 (3. 21, 목)	프랑크 푸르트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사회적 기업 방문 - 일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의견 교환 	
제5일차 (3. 22, 금)	뤼데스하임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포도농장 및 와이너리 방문 -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대한 자료수입 	
제6일차 (3. 23, 토)	괴팅겐 퀼 른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데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마을 방문 - 신재생에너지(원데) 자립 마을 퀼 른 이동 	
제7일차 (3. 24, 일)	퀼 른 브뤼셀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뤼셀 이동 	
제8일차 (3. 25, 월)	브뤼셀 암스테르담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클러스터 방문 (지역농장) - 유기농 재배 및 전문 농업인 육성관련 자료 비교 분석 	
제9일차 (3. 26, 화)	헤 이 그 암스테르담	전용차량 국제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농업 센터 방문 (농업대학) - 유기농 재배 농가 자료 비교 분석 암스테르담 출발(KE926) 	
제10일차 (3. 27, 수)	인 천 도의회	국제항공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공항 도착(14:50) 인천출발(15:30) → 도의회 도착(18:00) 	



【프랑스 농업지방청을 방문하여 친환경 농업관련 관계자와의 의견교환】

1) 일반현황

- 방문일시 : 2013. 3. 19(화), 16:00 ~
- 인구/면적 : 인구 130만명, 면적 59km² (농가면적 60%)
- 농 가 수 : 2,580가구
- 주요농산물 : 밀, 채소, 원예, 축산(소) 20,000두 정도
- ※ 생산된 밀은 90%이상 파리 등 대도시에서 소비됨.

2) 주요 연수내용

- 친환경 유기농 바이오 식물 존중 우선 정책 시행
- 물 관리로 식수 오염방지 대책강화(2007~2016)
 - ▶ 비료와 농약 사용량(20~50%) 줄인다고 약속한 농가는 자금지원과 비료, 농약 사용량을 농업지방청에 신고해야 함.

- 자연환경 보전정책으로 도시와 자연과 공존하는 정책
 - ▶ 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조성, 숲·올타리로 자연환경 보전
- 도시화를 추진할 수 없게 농촌(농업)보호 정책 추진
 - ▶ 농가수가 줄어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도록 경제지원
 - ▶ 농업인이 잘살고 있어 농업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음
- 문제점으로 연 700ha 농지감소, 고령화 농업인 50%이상
- 학교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비율은 20%이나 현재 4~5% 수준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친환경 생산농가의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관리하고,
 - 비료 및 농약 사용량을 줄 일 경우 인센티브 지원
 - ▶ 이론적으로 합리적이거나 우리나라 정서에 다소 곤란
- 귀농 희망자는 농업인대학 또는 귀농대학을 이수하고 1년간
 - 농촌에서 직접 생활을 했을 경우 전문가가 인터뷰 방식으로 「의지·자격」등 검증 평가 후 귀농자로 선정
 - ▶ 농업 기준 자격자 위주 정착비 지원으로 전문 농업인 마을 정착유도
 - ▶ 농업인 고령화 대비와 농촌 리더 역할 수행

4) 주요 질문내용

◆ 이종현 위원장

-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무엇이며, 유통과정은?
 - ▶ 밀, 채소, 원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통은 파리나 근교 대도시에 보급하고 있음.
밀은 생산량의 90%이상 인근 대도시에 공급

◆ 고남종 의원

-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정책은 있는가?
 - ▶ 당초 농가에서 농산물 생산량을 신고할 때 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줄인다고 약속한 농가에 한하여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김득응 의원

-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농업인만을 위한 보조금 지원제도는?
 - ▶ 정부가 농민들을 위한 특별한 보조금 지원은 없으며, 친환경 농산물 재배와 물관리 쿼터제에 의한 적정량의 농업용수를 사용한 농가에 지원하는 보조금 일부가 있음.

◆ 조이환 의원

- 젊은 농업인이 대도시로 많이 이동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이곳도 젊은 농업인이 대도시로 이주하고 있음. 그래서 젊은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도록 경제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 ▶ 고령화 농업인이 현재 50%이상 늘어나고 있으며, 연 700ha의 농지가 감소하고 있음.



【프랑스 농업회의소를 방문하여 관계국장님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의견교환】

1) 일반현황

- 방문일시 : 2013. 3. 20(수), 11:00 ~
- 조직체계 : 중앙 농업회의소 1개소, 지역 농업회의소 21개
- 기초의원 : 4,200명 (임기 6년) / 농업회의소 직원 : 6,800여명
- 주요업무 : 농정활동, 농업지도사업, 직업 교육훈련, 농촌 관광사업 등 농정업무와 현장 농민들의 행정적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등을 상대로 농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문 기능과 농민들을 상대로 한 기술 및 경영상담, 교육, 농촌 관광 네트워크 등을 추진하므로 정부와 유럽 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농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주요 연수내용

- 농산물 생산에서 농촌관광(그린 투어리즘)이 증가 추세
- 임대농업 70%, 기업농업 1970년 10%에서 → 2010년 50%로 증가
- 농지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에도 도의 승인을 얻어야 됨
- 젊은 영농인 육성으로 위해 심사결과를 통해 정착비(집)·농지 구입비 등으로 8,000~16,000€ 지원
- 농가수입은 1ha당 400~500€ 수준
 - ※ 유일하게 농업만 1ha당 310€정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축산·산림 농가 등 반대여론으로 25%를 삭감 할 예정
- 농업용수 사용량 규제는 국가차원에서 시행(파리시의 식수원 사용)
- 주거지역 인접 농경지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유기농을 권장
 - ▶ 유기농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반대로 자별적 유도 여론이 쟁점사항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도시민중 주말농장 희망자 선정 후 임대형 주말 농장제공 사업 추진 필요
 - ▶ 토지는 지방비로 구입 또는 휴경농지를 조사하여 임대형 주말농경지 확보
 - ▶ 주택은 조립식으로 10평 규모로 농촌주택개량 사업비 지원
(융자금 30~50백만원, 이율3%/ 농협80%, 도10%, 시군10%)
 - ☞ 기대효과 : 토지구입과 건축비 과다로 경제적 부담 덜어줘 농촌마을 활성화,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 마련
- 농경지 내 농업용 폐공 관정 관리 철저
 - ▶ 농업용 폐공관정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철저 지하수 오염 예방

4) 주요 질문내용

◆ 김홍열 부위원장

- 지역 농가에 보조금 지원은 있는가?
 - ▶ 유기농 생산 농가에 대한 보조금이 일부 있음. (1ha당 310유로)

◆ 조길행 의원

- 이지역 농가 소득은 어느정도 인가?
 - ▶ 이지역 농가수입은 1ha당 400~500€ 수준이며, 농업만 1ha당 310€정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축산·산림 농가 등 반대여론으로 25%를 삭감예정

◆ 김득웅 의원

- 농업용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 ▶ 현재 농업용수는 농작물을 생산하는 양만큼 신고하여 농업용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시는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금을 함.

◆ 이종화 의원

- 젊은 영농인 유입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가?
 - ▶ 젊은 영농인 육성으로 위해 심사결과를 통해 정착비(집)·농지 구입비 등으로 8,000~16,000€ 지원



【브라운 홍보이사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황 설명】

1) 일반현황

- 방문일시 : 2013. 3. 21(목), 16:00 ~
- 회사규모 : 1921년 창립, 직원:145,000명, 다국적기업
- 생산제품 : 남성용품 (면도기, 트리머)등 주방, 가정용품 제조
- 기업활동 :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
 - ▶ 일정 수익 및 이윤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

2) 주요 연수내용

- 육아보육실 설치 운영 지역 취약계층 자녀 복지 기여
-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방침으로 지역주민 고용률 창출
- 지역주민 건강 체육센터 설치 제공,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기업유치 시 지방재정 보다는 고용창출 기업 중심으로 유치
-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활동 기업 발굴 유치
- 기업발전 더불어 지역주민 복지향상에 기여 등 상생관계 여건 조성

4) 주요 질문내용

◆ 김홍열 부위원장

- 사회적기업 운영과 관련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보조금은 있는가?
 - ▶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보조금은 전혀 없으며, 순수 자사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종화 의원

- 사회적 기업으로의 향 후 발전 계획은?
 - ▶ 우리회사는 이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길 원하며, 이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친환경 도시를 조성할 계획
 - ▶ 이지역 농산물을 이용하기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전 직원들의 복지 향상 등 확대할 계획임.

◆ 조길행 의원

- 정부와 회사간 협력체계는 어떻게 구축하고 있나?
 - ▶ 우리 회사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다국적 기업으로서 정부와 기업간 우호협력 체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잘 해주고 있음.

5

독일 포도농장 및 와이너리 (Weingurt Prasser)



【포도농장 와이너리에 방문하여 담당자의 재배현황과 와인생산 설명】

1) 일반현황

- 방문일시 : 2013. 3. 22(금), 11:00 ~
- 농장규모 : 6ha포도경작, 전가족 참여(4명)
- 포도주생산 : 6ha농장 ⇒ 14,000ℓ 포도주 자가 생산 (18,600병 정도)

2) 주요 연수내용

- 라인강 경관을 이용한 농촌관광이 활성화된 마을(체험관광)
- 생산포도주의 30% 인접 호텔 납품, 관광객, 체험객 등과 기타 단골손님 등을 대상으로 판매 (별도 홍보매체 없음)
- 지역생산품과 지역소재 호텔 등 자체 소비, 부가적으로 민속 공예품 판매소득을 통하여 마을 공동이익 창출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주류·과일 등)과 먹거리 재료 등을 「학교(대학교, 초·중·고),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적극 구매 활용 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협력방안 모색
 - ▶ 각 기관·단체·향토기업·학교가 참여 농촌사랑 및 소비 촉진 운동 전개
 - ▶ 사과·배·감·포도 재배농가 개인 또는 조합 위주 자가 와인 생산 기반 활성화 방송·언론 등 정기적인 홍보 전개
- ※ 도시생활에서 농촌생활로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부각

4) 주요 질문내용

◆ 이종현 위원장

- 이곳 포도농장에서 생산되는 포도량과 농장규모는 어느정도인가?
- ▶ 이곳 포도농장의 규모는 6ha정도로 14,000ℓ의 포도주를 생산하고 있음

◆ 고남중 의원

- 이곳에서 생산되는 포도 와인들은 어떻게 유통시키고 있나?
- ▶ 인근 대형식당이나 호텔등에 전량 유통되고 있으며, 별도의 홍보 마케팅은 하지 않고 있으며, 와이너리 방문자에게 판매 홍보하고 있음.

◆ 조이환 의원

- 이농장 규모6ha에서 생산되는 포도주를 관리하는 인력은 몇 명 정도인가?
- ▶ 우리 포도농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가족 4명과 단순 재배를 위한 인력 3명 정도 일하고 있음. 수확 시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 고용



【독일 원데 친환경재생마을을 방문하여 담당자의 설명을 청취하는 장면】

1) 일반현황

- 방문일시 : 2013. 3. 23(토), 09:30 ~
- 마을규모 : 원데마을 지역주민 150가구 750명, 농경지 150헥타
- 시설개요 : 축분 활용 친환경 발전기 설치운영
 - 생산시설 : 750KW, 난방용 온수관로 설치 5.5km
 - 사업비 : 540만€(정부보조 150만€, 자부담 390만€)
 - 운영방법 : 원데마을 협동조합을 설립·운영
 - 주연료 : 9가구 500두 젓소 사육 배설물, 500ha 폐목재료 활용
 - 발전소운영 : 관리인 1명(여름철 2명 근무)
 - 기대효과 : 연 13억원 전기판매 소득, 3,300톤 CO2 절감, 유류비 40만ℓ 절감, 주민들 만족도 향상

2) 주요 연수내용

- 입지선정 시 4개소 마을이 신청하였으나 주민들 공동체 의지가 강해 평가위원들이 원데 마을을 선정 (최초 시범사례)
- 농가수입 감소는 마을 경제 침체와 주변 상점 폐쇄됨. 마을기능 상실 우려
 - ▶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전력·난방절감” 소득장출 방안을 구상·추진
- 사업비는 매칭펀드로 정부지원과 마을주민 자부담으로 구성
- 농가마다 연간 배출량을 협동조합과 계약체결, 안정적 수급
 - ▶ 집하장 등에서 냄새가 나도 주민들 간 갈등은 없음
- 추진과정에 어려웠던 점 극복사례
 - ▶ 사업초기에 기술력 부족으로 기계작동 오류, 가동중단과
 - ▶ 마을주민 재정부담 등으로 동요 발생
- ☞ 토론을 통해 후손들에게 물려 줄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대한 사업추진 긍정적 의견 일치로 문해 해결 됨.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마을당 유류(40만 ℓ) 에너지비용 감소로 소득증대 및 주민화합에 기여
- 연간 3,300톤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에너지자립) 효과
- 관광객 증가에 따른 마을카페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단순 입지조건 보다는 전 주민 참여, 강한 공동체의 중요성 인식
- 마을 리더자 추진 역량과 지역공동체 의식이 주민갈등 극복에 기여

4) 주요 질문내용

◆ 김홍열 부위원장

- 원데마을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사례와 정부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은 어느 정도인가?
- ▶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보조금은 150만유로이고 현재 축분과 폐목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전력은 전력회사에 재판매 하고 있음.

◆ 김득용 의원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얻어지는 경제적인 효과는 있는가?
- ▶ 유류비용이 연간 40만 ℓ 가 절약되고 있으며, 전기판매 수입이 연간 13억원 정도의 경제적인 소득이 있음. 또한 3,300톤의 co2절감효과가 있음.

◆ 이종화 의원

- 이 마을에 가축분뇨 처리장을 설치할 때 주민들의 반대는 없었는가?
- ▶ 우리 마을에 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체 주민의 75%가 참여하고 동참하여 정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마을 주민들간의 이해갈등이 있을 시에는 마을 대표 리더와 주민들 간 대화로 해결함.

◆ 조길행 의원

-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 ▶ 사업초기 축분활용 발전기 운전 기술 등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며,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주민불만 발생이 있었으나 전체 주민 참여하에 대화로 해결함.



【네덜란드 파프리카 농장을 방문하여 재배현황에 대하여 설명】

1) 일반현황

- 방문일시 : 2013. 3. 26(화), 15:00 ~
- 시설면적 : 20ha / 시설비 : 2,000천만유로 (약300억원)
- 난방방식 : 열병합발전기 → 2013년 지열이용 시스템 전환계획
↳ 유리온실 설치 친환경 농산물 파프리카 재배 생산 (일본수출)

2) 주요 연수내용

- 아그리포트의 가구당 유리온실 평균 면적
 - ▶ 파프리카 43ha, 토마토 73ha
- 양액재배 방식과 열병합 발전기 가동난방으로 생산비 절감
 - ▶ 생산전력 유리온실 난방, 발전기 가동중 발생한 CO₂ 재배작물 생육에 활용
- 친환경 재배단지 정부가 조성 저렴한 가격으로 희망농가에 분양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C.H.P열병합 발전기를 가동하여 전력생산과 발생한Co2 재활용
 - ▶ 전력의 일부는 유리온실에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전력회사에 판매
 - ▶ 발전기 가동 중 발생 한 열로 지하수를 데워 유리온실 난방에 사용
 - ▶ 발전 중 발생하는 CO2까지도 재배작목에 재활용
- 농작물 병충해 예방을 위해 외출복과 작업복, 신발까지 구분 철저히 관리
 - ▶ 외부 방문객 통제 관리 철저, 작업종사자 외출, 작업복장 분리 착용
 - ▶ 진디물이 좋아하는 화초를 이용한 재배작물 병충해 예방

4) 주요 질문내용

◆ 이종현 위원장

- 자가발전기 설치 사용의 효과는 무엇인지?
 - ▶ 자가발전기 가동으로 전력 생산하고 남은 전력은 전력회사에 판매
 - ▶ 천연가스 사용으로 친환경적이고 발전 중 CO2발생 식물재배 활용 가능

◆ 고남종 의원

- 자가 발전기 설치 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있었는지?
 - ▶ 정부의 보조금은 없으며, 자기자본과 은행 대출 이용
 - ▶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커 초기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음. 생산비 절감에 도움

◆ 조이환 의원

- 이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어떻게 유통하고 있나?
 - ▶ 친환경 무농약 재배와 양질의 파프리카 생산으로 대부분 일본에 수출하고 있음.
- 이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인력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나?
 - ▶ 외국인인 많으며 젊은층의 인력을 활용 노동력을 해결



【네덜란드 유기농업센터(클러스터 전문대학) 방문 담당교수의 재배현황 설명】

1) 일반현황

- 방문일시 : 2013. 3. 26(화), 10:30 ~
- 방문기관 : 네덜란드 농업 클러스터 대학 (2년제, 4년제)/250명
- 주요내용 : 대학과정을 통한 젊은 전문농업인 양성 배출
 - ▶ 학습 50%, 실기 50%(채소,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등) 학습과정
 - ▶ 자격증 소지자 친환경 농작물 재배 유도 농업경쟁력 강화

2) 주요 연수내용

- 친환경 유기농 재배기술 전수, 세계적인 농업전문가 배출과정
 - ▶ 학습 50% 실기, 50% (작목재배, 농기계 트랙터, 굴삭기 등) 교육실시
 - ▶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농기관관련 자격증 수여, 젊은 전문 농인인 양성
- 대부분 토지가 국유지로 임대 가능하며, 대규모 친환경 농작물 재배유도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유기농 친환경 재배기술 교육, 전문농업인 배양
 - 채소, 과수, 가축 사육 등 친환경 유기농 재배 친환경 사육 등 대학과정 과학영농 교육 실시
- ☞ 도내 대학을 활용 1년과정 친환경 농산물재배학과 설치운영 필요

4) 주요 질문내용

◆ 김홍열 부위원장

- 본 유기농업센터 대학은 언제부터 설립 운영하여 왔는가?
 - ▶ 1993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이론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 김득응 의원

- 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은 잘되고 있는가?
 - ▶ 본대학교 전문 지식을 습득 자격증 이수 후 농업에 종사 또는 농업관련 기관과 회사에 100% 취업하고 있음.

◆ 이종화 의원

- 이 대학에서 교육하는 분야와 과정은?
 - ▶ 교육과정은 2년제와 4년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친환경 재배기술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조길행 의원

-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있는지?
 - ▶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은 없으며, 다만 자국 학생에 한하여 학자금 일부 지원

1 경제분야

1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마을기업 육성 융·복합 지원

- ◆ 축산 부산물(축분)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 활용
- ◆ 가축 분뇨의 에너지 자원화로 상수원, 농업용수 오염예방 효과 도모

방문지 연수내용

- 마을규모 : 원데마을 지역주민 180가구 750명, 농경지 1,300헥타
- 시설개요 : 축분 활용 친환경 발전기 설치운영
 - 사업비 : 540만유로 (80억원) / 정부 150만유로, 자부담 390만유로
 - 750kW(연간발전량 80만kWh) / 지역난방용 배관 : 5.5km
 - 축산농가 9농가 400여마리 / 가축분뇨 발생량(연간) : 9,500m³
- 사업효과
 - 마을에서 발생한 바이오(축분 등)을 활용 100% 난방열 공급
 - 유류(연간) 40만kl 절약, 지역 전력소비량의 60% 자체 충당 효과

우리도의 현 실태

- 道 축산분뇨 발생량 : 19,353m³/일 *2010년 기준
 - i) 가축분뇨 발생량 : 소(19.7%), 젓소(18.3%), 돼지(47.5%), 닭(13.0%) 기타(1.5%)
 - ii) 시군별 현황 : 홍성군(14.0%), 예산(12.7%), 당진(12.6%), 천안, 아산 순
- 가축분뇨(소, 돼지, 닭 등)의 하천 농경지 방류로 상수원 및 농업용수 오염 원인

□ 정책 제언

① 축산분뇨 처리 자원화사업 적극 추진

- 사업명 : 축분활용 친환경 발전기 설치
- 사업내용 : 가축분뇨처리 활용으로 에너지 재생산
- 소요사업비 : 8,000백만원 (독일기준) / 연간처리 9,500m³

《사업추진 사례》

시 설 명	운전상태	시설용량(m ³ /일)	발전시설(kW)	설치연도
청양 여영농장(개인)	가 동 중	20	60	2006
홍성 (농가)	가 동 중	-	20	2007

【참고사항】

- 독일 윈데마을 시공사례 파악 및 벤치마킹
- 축산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 주민 참여로 마을단위 사업추진 필요
- ▶ 분뇨활용 발전소 설치 1개소 80억원 예산 필요

② 축산분뇨를 활용한 난방연료화 시범사업 적극 추진

- 사업명 : 보일러 난방용 축분탄 생산
- 사업내용 : 가축분뇨를 이용한 난방연료 생산 및 저장시설 설치
- 소요사업비 : 280백만원
- 사업효과 : 난방연료 수입 대체 등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사업추진 사례】

시 설 명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비고
홍성군 축분탄 저장시설	'13 ~ '14 (2년)	280(국50/지방비50)	건립중

【참고사항】

- 축산·분뇨 원료 이용 난방용 축분탄 시범사업 확대 추진
- 예산, 당진, 천안 등 각 1개소 사업자 선정 시범 추진
 - ▶ 축분탄 생산시설 1개소당 280백만원 예산 필요

③ 온천지역 지열 활용 대책 강구

- i) 도고, 덕산 등 온천지역 지열 이용 히트펌프방식 지역난방 활용 대책 검토
 - ▶ 내포신도시, 도고, 덕산, 온양 등 신재생 친환경에너지 지역난방 공급

◇ 내포 신도시를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건설 -----

- ▶ 유류, 가스, 전기 위주의 난방 시스템을 미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인 도고 온천지역 지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활용 방안 검토

④ 열병합 발전소(C.H.P) 설치사업 추진

- i) 도내 시설하우스 단지 중심 열병합 발전기(20ha기준)설치 중앙 난방공급 운영
- ii) 설치비 300억원 소요됨으로 개인지원보다는 재배단지 작목반 대상 지원 검토
 - ▶ 열병합 발전소를 이용한 전력생산과 온실 난방, Co2재활용 등 생산비 절감 효과

□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마을에너지 비용 감소 소득증대 기여
- 연간 3,300톤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에너지자립) 효과
- 가축분뇨의 에너지 자원화로 가축농가 축분처리 어려움 해소

2 농업분야

2 「화력발전소」와 연계한 「시설하우스」 난방 해결

- ◆ 도내소재 화력발전소 폐열온수 이용한 시설하우스 난방 활용
- ◆ 지역 특성의 자원(온천지역)을 활용한 지역난방 공급

방문지 연수내용

- 방문지역 : 네덜란드 「아그리포트 파프리카 농장」
- 시설면적 : 20ha / 시설비 : 2,000천만유로 (약300억원)
- 난방방식 : 열병합발전기 → 2013년 지열이용 시스템 전환계획
- 사업효과 : 열병합 발전기를 가동, 전력생산과 발생한Co2 재 활용
 - i) 천연가스 열병합발전기 설치 온실난방으로 생산비 절감
 - ii) 전력의 일부는 유리온실에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전력회사에 판매
 - iii) 발전기 가동 중 발생 한 열로 지하수를 데워 유리온실 난방에 사용

우리도의 현 실태

- 농산물 시설하우스 재배 시 유류와 전기를 이용한 난방 사용
 - i) 유류, 전기단가 매년 상승 생산비 증가 ('12년대비 기름 1 당 4%, 전기Kw당 3%)
- 대부분 외국에 비하여 소규모 면적 농산물 재배
 - i) 외국의 농산물 재배시설 규모와 면적에 비하여 경쟁력 취약
 - ▶ 전기, 유류 단가 매년 상승 농산물 생산비 증가, 절감대책 절실

□ 정책 제안

- ① 도내 화력발전소 운영 중 발생하는 폐온수 활용 대책 강구
 - i) 도내 화력발전소 운영 : 보령, 당진, 서천, 태안 폐온수 발생 : 4개소 일일 3,000만톤 배출
 - ii) 발전소 주변마을 시설하우스 재배단지 조성, 발전소 발생 폐온수 연계 난방지원 방안
 - ▶ 온수 배관설비 설치 추진, 화력발전소 폐온수 시설농가 공급

□ 기대효과

- 화력발전소 발생 폐온수 친환경 에너지로 재활용
 - i)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 친환경 에너지 기반 조성 실현 선도적 역할
 - ii) 시설하우스 농가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3 「친환경농업 전문농업인」 육성 장기교육 과정 운영

- ◆ 농업인 고령화로 차세대 젊은 전문 농업인 양성 배출
- ◆ 친환경 농업재배기술 특성상 단기보다는 장기 재배교육 필요

방문지 연수내용

- 방문기관 : 네덜란드 농업 클러스터 대학 (2년제, 4년제)
- 주요내용 : 대학과정을 통한 젊은 전문농업인 양성 배출
 - i) 학습 50%, 실기 50%(채소,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등) 학습과정 이수 및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전문농업인 자격증 수여 / 매년 250명 전문농업인 양성
 - ii) 자격증 소지자 친환경 농작물 재배 유도, 국가간 농업경쟁력 강화

우리도의 현 실태

-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를 선도 할 정예농업인력 육성이 필요하나
 - i) 농촌인구 고령화로 장기적인 후계 전문인력 확보에 차질 / 농업인 중 65세이상 34%
- 현 장·단기 농업교육은 기초적 재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나
 - i) 새로운 친환경 신기술 재배 능력 배양에는 한계 (이론, 경험을 겸비한 전문인력 필요)
- ※ '13 교육계획 : 단기과정 8개분야 67개과정 3,500명 / 장기과정 4개분야 23개과정 460명

정책 제안

- 친환경 농업 장기 전문과정 설치 운영
 - i) 운영주체 : 충청남도/ 교육시행 : 청양도립대학 내 1년과정 (주말반/야간반)
 - ii) 친환경 전문재배기술, 국제 농업동향 등 교육 / 행정지원 : 농업기술원

기대효과

-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유기농 친환경 재배기술 교육, 전문농업인 배양
- 도내 대학을 활용 1년과정 친환경 농산물재배학과 운영 기반 강화

4 「농어촌 마을단위사업」 선정 기준 제도개선

- ◆ 마을단위 사업은 전 주민 참여 사업계획 수립 유도 공동체 의식 강화
- ◆ 강한 공동체 의식으로 문제 발생 시 자체 해결 능력 기반 조성

□ 방문지 연수내용

<독일의 공모 마을사업 선정 성공사례>

- 독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마을 사업 후보지 선정시
 - i) 입지여건이 좋은 3개 마을보다 전 주민 참여, 공동체 의지가 강한 원데마을 선정
 - ii) 사업 추진 중 기술력 부족, 주민 추가 재정부담 등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 ▶ 공동체정신 통일된 목적의식을 기반으로 주민갈등 슬기롭게 극복

□ 우리도 마을사업의 현 실태

- 「농촌개발사업」 등 마을사업 선정 시 대다수 지자체 (마을)에서 주민참여도 보다는 사업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추진
 - i) 컨설팅 회사에 위탁 짧은 기간 심층 분석 없이 사업계획 수립
 - ii) 마을리더 등 일부 주민만 사업 참여로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 소홀
 - ▶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사업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이 단합된 모습보다 사업추진 역량부족, 주민 간 혜택여부 등 내부갈등 발생, 자체해결 불가

□ 정책 제언

- 농어촌 마을단위사업 공동체 조성을 위한 선정 기준 개선방안 모색
 - i) 독일정부의 원데 신재생에너지 마을 선정기준 사례 도입
 - ii) 충남도 마을공동사업 : 13실과 30개사업 선정기준 재정비 검토
 - ▶ 사업선정에 대한 쏠주민 참여도, 리더역량 평가 등 선정기준 강화

□ 기대효과

- 단순사업 입지조건 보다는 주민 참여, 강한 공동체의식 중요성 강조
- 마을 리더자의 역량과 지역공동체 의식이 주민갈등 극복에 기여

실과명	대상사업현황	비고
13실과	30개 사업	
농촌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계획경작로 확포장 •농촌생활환경정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6개 사업
건축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골마을 풍경 스케치사업, 농어촌주택개량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정비사업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5개 사업
저출산고령화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운영 •행복경로당 조성 	2개 사업
일자리경제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풀뿌리마을기업육성, 충남형사회적기업육성 	2개 사업
보건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마을주치의제운영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2개 사업
수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과함께하는 도랑살리기 	1개 사업
정보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화마을 육성 	1개 사업
치수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하천 정비사업 	1개 사업
농업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소득 창출 •마을공동문화 조성, 녹색농어촌체험마을조성 	4개 사업
산림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 	1개 사업
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종합개발사업, 희망마을 만들기 	2개 사업
문화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문화콘텐츠사업 	1개 사업
수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체험마을조성 	1개 사업
산림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촌생태마을조성 	1개 사업

(단위:반/기/명)

구분	과 정 별	반수(학과)	교육기수	인 원
	합 계	90	109	3,954
단기 과정	소 계	67	86	3,494
	정책·전문기술교육	16	18	900
	농산업기계교육	10	20	498
	경영정보교육	9	11	330
	체험교육	11	14	266
	상설교육	5	5	150
	귀농현장교육	3	3	90
	3농혁신대학과정	11	11	1,100
	지역리더양성교육	2	4	160
장기 과정	소 계	23	23	460
	최고농업경영자과정	4	4	80
	농업마이스터대학	12	12	240
	농업인대학	2	2	60
	귀농대학	5	5	80

(2010. 12 현재)

시군별	도내농업인수	65세이상농업인수	비율
충청남도	394,324	133,472	33.8%
(동부)	(39,443)	(7,897)	(20.0%)
(읍부)	(86,469)	(24,848)	(28.7%)
(면부)	(268,412)	(100,727)	(37.5%)
천안시	36,774	9,220	25.1%
(동남구)	(18,867)	(5,297)	(28.1%)
(서북구)	(17,907)	(3,923)	(21.9%)
공주시	31,577	10,639	33.7%
보령시	22,632	8,252	36.5%
아산시	30,019	8,874	29.6%
서산시	33,778	12,170	36.0%
논산시	31,185	10,067	32.3%
계룡시	1,647	398	24.2%
금산군	19,188	6,708	35.0%
연기군(세종시)	15,228	4,663	30.6%
부여군	27,798	9,400	33.8%
서천군	17,255	6,853	39.7%
청양군	15,694	6,154	39.2%
홍성군	28,274	9,931	35.1%
예산군	28,280	10,216	36.1%
태안군	19,266	7,610	39.5%
당진시	35,729	12,317	34.5%

도내 화력발전소 현황

연번	위 치	유 형	발전량 (Gwh)	온배수 배출량 (Ton/일)	온배수활용 (처리)현황	비고
1	오천면 오포리	중부발전 (주) 보령화력	37,444	1,350만	· 수산종묘배양장 추진 ('13년 착공예정)	
2	서면 마량리	중부발전 (주) 서천화력	3,038	127.7만	· 미활용	
3	석문면 교로리	동서발전 (주) 당진화력	33,596	820만	· 배수로 양식기술 연구개발 추진 (전남대와 협약)	
4	원북면 방갈리	서부발전 (주) 태안화력	32,742	942만	· 미활용	



서유럽 공무 국외출장을 다녀와서 ~~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이 종현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지난 3. 18일부터 3. 27일까지 8박 10일간 유럽 4개국(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을 출장하면서 기관방문을 통해 선진국의 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등 경제부문과 충남도 핵심사업인 3농혁신 중점과제 농업부문에 대해 벤치마킹으로 선진농업과 국민들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요즘 국회, 광역, 시·군구 의원들의 공무 국외출장 자체를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는 공무국외 출장 심의위원회 심의과정부터 출국하는 당일까지 국외연수의 목적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비 일부 중 자비 1,100천원을 부담하여 선진경제와 농업을 연수하고자 하였으며 하나라도 더 보고 배우는 마음으로 전체일정을 소화하였다.

출국일과 귀국일을 빼고 하루의 문화탐방일정을 제외하면 모든 일정이 공식기관방문으로 짜여 있어 의원들에게는 심히 고되고 부담스러운 국외출장이 되었고 나 또한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러한 강행군을 마다하지 않고 한마디 불평 없이 잘 따라주었고 한 번의 출발시간도 어기지 않으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님들과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가 방문한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는 EU 가입국으로 대한민국과 EU간에 지난 7월에 FTA가 발효됨에 따라 이들 나라들에 대한 경제와 농업분야 현실파악이 필요했다.

연수 첫 번째 방문기관인 프랑스 농업지방청을 방문하였을 때 지방청 의장께서 직접 우리 방문단을 따듯이 맞이하여 주시고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직접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선진국다운 기관 상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자국의 지방농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신뢰와 노력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농업인이 함께 농업정책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농업인 간 신뢰와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함을 느꼈으며, 선진국의 새로운 롤 모델을 배우고 익혔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방문국 출장중 더욱 놀라운 일은 독일 윈데미일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마을이라는 정도의 사전 내용만 알고 방문하였는데, 축산·분뇨 시설처리장에 도착할 때쯤 차안으로 가축분뇨 냄새가 심하게 나고 시설 처리장 규모도 소규모로 운영되는 단지였다. 우리는 이런 마을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또한 이런 시설로 어떻게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얻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지 의아하였다.

안내원의 시설현황과 마을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처리장 냄새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안내원의 답변에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축산·분뇨 이용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독일정부에 공모하기 전 마을 주민들 간 상호협약과 주민 전체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합의하고 이해관계에 대하여 서로 의논된 내용과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계획서에 포함하여 독일정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윈데미일 지역주민들의 열의와 주민간 협의한 사항이 인정되어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서 현재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또한 이곳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의 냄새에 따른 민원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주민 간에 협의와 논의한 사항이기에 지금껏 민원과 불편사항에 대해 전혀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원데마을 주민들이야말로 선진국다운 주민이라는 인상을 받았으며, 정부와 주민간의 민원과 이해관계에 대하여 대화를 통한 선진행정을 펼쳐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유럽 국가들에서 불고 있는 K팝 열풍에 주역이 되고 있는 가수 싸이에 대하여 각 나라별 도시의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말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문화가 이제는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구나 하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으며, 또한 현지대사관과 문화원을 통해 우리의 문화가 더 많은 부문에서 전해져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리도 근시안적인 시야를 넓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의식전환과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사고로 선진국 진입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도민과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먼저 선행하여야 할 것 같다.

끝으로, 방문 4개국의 경제와 농업 현실을 파악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서 도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일념 하나로 공식 방문일정 소화를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불평 없이 따라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번 출장을 통하여 새로이 습득한 식견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접목하고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더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겠다고 다짐을 해 본다.